

유형별 청자의 명절 갈등 표현 해석 양상 연구: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승 훈
(서강대학교)

Han, Seung-Hoon. "A Study on Interpretation Patterns about Korean Holiday Conflict Expressions on the Basis of Hearer's Type: Job Seekers' Cas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375-403.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anguage usages of job seekers who participate in conflict family discourses during Korean holiday with respect to hearers' types. Hearer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n the basis of three self-construal types; independent, interdependent, and ambivalent self-construal type (Markus & Kitayama, 1991; Ting-Toomey, et al., 2001).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 is used to identify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N=100), their self-construal types, and linguistic responses to conflict expressions. The focus of analysis is laid on linearly examining a meaning-interpretation and a relation-decision proc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interpretation patterns through the conversation-developing analysis and the face-negotiation theory. As for conflict expressions, each self-construal type shows unique linguistic results; (a) independent hearers (N=44) predominantly make rebuttals, refusals, or ignorance; (b) interdependent hearers (N=11) make partial refusals, acceptances, or acknowledgments; (c) ambivalent hearers (N=45) make rebuttals, acceptances, or avoidance, especially depending on the given context and their conversational goal. (Sogang University)

Key Words: job seekers, self-construal types, meaning-interpretation, relation-decision, cultural background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1566).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준비생(취준생)의 문화 배경과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취준생의 자아해석(self-construal)을 유형화하여 취준생이 명절 갈등 표현을 해석하는 양상을 언어,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자아해석은 인간의 정체성 또는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 상호작용에서 수행하는 대화 방법 등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언어사용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과 가치관 형성 과정에서 문화 배경의 영향을 설명할 때, 자아해석은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된다 (Singelis & Brown, 1995). 본 연구에서는 명절 갈등 표현을 가족과 친지가 명절 가족 간 대화에서 취준생에게 민감한 대화 주제를 언급하여 취준생의 체면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언어공격 행위로 한정한다. 갈등 상황은 가족과 친지는 취준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덕담일지라도 취준생은 상대가 의도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인식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계적 갈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세 가지 유형의 청자는 개인주의적 자아해석의 자아중심형 청자(independent self-construal hearer), 집단주의적 자아해석의 상호의존형 청자(interdependent self-construal hearer), 두 유형의 자아해석이 공존하는 양립형 청자(ambivalent self-construal hearer)¹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질적분석(언어분석과 청자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여 청자의 자아해석 유형을 살펴본다. 유형화된 청자의 자아해석관을 기준으로 청자가 명절 갈등 표현을 해석하는 양상을 대화전개법을 (Brinker & Sager, 2006)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청자의 자아해석관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유형별 청자의 언어적 특징과 자아해석 유형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해 청자의 자아해석관이 명절 갈등 표현을 해석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¹ Ting-Toomey & Kurogi (1998: 197-198)에서는 높은/ 낮은 상호의존적 자아와 높은/ 낮은 독립적 자아를 기준으로 양립형 자아해석을 두 가지 유형인 biconstrual과 ambivalent로 구분한다. 전자는 상호의존적 자아와 독립적 자아가 모두 높은 유형인 반면 후자는 두 자아가 모두 낮은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ambivalent를 양립형 자아해석 유형으로 채택하고 이를 다시 자아중심-양립형(양립형 1), 자아중심-상호의존 양립형(양립형 2), 상호의존-양립형(양립형 3)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2절에서 한다.

본래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제례 행사와 함께 답소를 나누며 가족 간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절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는 달리 취업준비생, 주부, 미혼 또는 기혼 직장인들 중 상당수는 명절 동안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명절을 불편한 행사 혹은 피하고 싶은 날로 인식하고 있다. 2017년 1월에 ‘취업포탈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966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374명(38.7%)이 명절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해서’를 꼽았다 (뉴스토마토, 2017. 1. 25.; 한국경제, 2017. 1. 24.).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성인 10명 중 약 4명이 명절스트레스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을 가족 사이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적절한 언어사용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의 경우 개인적 자존감과 정체성에 상처를 주어 구직 준비 활동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EBS News, 2017. 2. 3.). 이러한 상황은 영미권 문화의 취업준비생들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의 가족 역시 취업준비생들의 성공적 앞날을 기원하는 의도에서 취업준비생들과 구직 관련 대화를 시도한다. 다만 취업준비생들이 그들의 가족이 원하는 긍정적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관심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주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매체와 여론 조사 기관에서 주도하는 실태 보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명절 가족 대화는 취업준비생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의 명절 언어사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언어학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II. 선행연구

전경미 (2013)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명절 문화 인식과 갈등의 원인을 가

족 관계와 가사노동의 분담 형태에서 논의하고 있다. 명절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가사노동에서 가족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민자를 배려하거나 이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가사노동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김순중 (2014)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1,179명(남:475명, 여:704명)을 대상으로 가족 가치관, 명절 인식, 차례 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순중 (2014)에서는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가사 부담, 시대 중심 문화, 불편한 가족 관계를 지적하면서 남편의 가사 분담 또는 기혼 여성의 우울증 치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명절 갈등을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는 사회, 문화, 복지, 종교 관점에서 명절 갈등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가족 대화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화의 언어적 역할과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족 관계 개선 증진방안 또는 가족 탄력성 회복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지희·권순희, 2015; 윤숙자·김희정, 2013; 정현숙, 2009). 구현정 (2014)은 장모와 사위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여 대화실태를 분석하였다. 장모와 사위 간 대화의 만족도를 낮추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짜증 섞인 어투, 장모의 고집, 집안 문제와 같은 언어 외적 요인을 지적한다. 노은희 (2015)는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는 말대답, 말대꾸의 양상을 서양과 한국의 체면의 관점에서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가족 대화 내 갈등의 원인을 가족의 기능, 역할 또는 세대 차이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체면(face)’은 사회적 관계에 대처하는 인간의 내면적 모습을 개념화했던 Goffman (1967)이 제안한 사회적 개념이다. Brown & Levinson (1987)은 Goffman (1967)의 체면 개념을 발전시켜 체면을 ‘적극적 체면(상호작용에서 개인이 바라는 공적인 자아상)’과 ‘소극적 체면(상호작용에서 개인이 바라는 개인적 자아상)’으로 세분화한다. 그들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면을 체계화하고 상호작용에서 대화자가 선택하는 언어전략과 각 체면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언어의 공손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의 체면은 북미의 개인주의 관점에서 제안된

개념인 나머지 집단주의 문화 배경이 지배적인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언어적 공손의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강길호, 2009). 또한 그들의 체면은 화자가 선택하는 언어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으로서 체면을 활용한 언어사용 분석의 중심은 화자의 인지적 과정의 산물인 화자의 발화에 맞추어진다. 물론 인지 처리 과정에는 해석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호작용에서 해석과정은 청자가 경험하는 고유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에서는 해석과정에서 청자의 독립적 역할, 즉 청자의 의도가 해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승훈·이성범 2015).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개념은 집단주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사용자의 언어사용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화자 발화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언어적 대응, 즉 화자 발화에 대한 해석의 결과물을 결정하는 청자의 핵심적 역할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Mills, 2003; Sifianou, 2012; Watts, 2003). 한편 국내에서는 Brown & Levinson (1987)의 언어전략과 체면 또는 Leech (1983)의 공손 격률을 통해 언어사용의 공손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보편성을 지닌 개념으로써 지위와 위계성 등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어 화자가 수행하는 대화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김영옥·양정은,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면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 국외 연구는 화자의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 손상을 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점을 갖는다.

Ting-Toomey & Kurogi (1998)는 체면은 특정 화자에게 귀속되어 고정된 것이 아닌 화자와 청자의 정체성과 문화 배경에 따라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협상되는 개념으로 본다. 그는 상호작용에서 화자와 청자가 요구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체면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체면추구방향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Chen, 2001). Oetzel & Ting-Toomey (2003: 600-604)에서는 체면협상이론(face negotiation theory)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문화와 자아중심형, 상호의존형, 양립형 자아해석이 언어사용자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체면협상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또한 Ting-Toomey

(1994)는 개인은 자신의 문화 배경에 따라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언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 문화의 화자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요청하기, 정당화하기, 명확하게하기 등을 선택한다고 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의 화자는 간접요청, 부분부정, 빗겨말하기 등의 전략을 통해 갈등에 간접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1)에서 갈등에 대응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언어전략과 사례를 정리한다.

(1) 집단주의 문화의 갈등 대응 언어전략 (Ting-Toomey, 1994: 366)

1. Qualifiers: “Perhaps, we should meet this deadline together.”
2. Tag questions: “Don’t you think we might not have enough time.”
3. Disclaimers: “I’m probably wrong but, ...”
4. Tangential response: “Let’s not worry about that now.”
5. Indirect requests: “If it won’t be too much trouble, let’s try to finish this report together.”

한편 Ting-Toomey 외 2 (2001)와 Oetzel (1998)은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북미와 유럽인들의 갈등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자아중심형과 상호의존형 자아해석을 자아중심형, 상호의존형, 양립형으로 세분화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아중심형의 경우 개인의 권리, 체면, 이익 등을 지키기 위해 감정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와의 갈등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체면 추구 방향이 자신에게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개인주의 문화의 단면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상호의존형은 상대와의 관계, 상대의 체면 또는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회피, 배려, 양보하기 등의 상호호혜적 갈등 대처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양립형은 주어진 상황에 가장 의존적인 유형으로서 상황에 따라 자아중심형 또는 상호의존형의 성향을 보인다. Oetzel & Ting-Toomey (2003: 619-620)에서 자아해석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예시 문항을 (2)에 정리한다.

(2) 세 가지 유형의 자아해석 확인 문항

1. 자아중심형 자아해석 (Independent self-construal)

I preferred to be self-reliant rather than depend on others.

I tried not to depend on others.

2. 상호의존형 자아해석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 respected the decision made by the other person.

I sacrificed my self-interest for the benefits of our relationship.

3. 양립형 자아해석 (Ambivalent self-construal)

I tried to meet other person halfway.

I tried to use “give and take” so that a compromise could be made.

III. 온라인 설문과 분석법

3.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경기도와 서울 소재 세 곳의 4년제 대학교 영문과 학부생 중 최소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 4학년 100명을 피험자로 구성한다. 설문은 온라인(구글 Docs)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응답자에게 설문을 보낸 후 수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 까지 4일 동안 시행한다.

3.2 문항설계 및 내용

설문은 네 개의 분야로 설계한다. 분야 1은 성별, 나이, 학년, 취업준비 기간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한다. 분야 2는 피험자의 문화 배경과 자아해석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한다. 설문 내용은 Ting-Toomey 외 2 (2001: 96)에서 채택한 자아해석 구성 요인을 확인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설계한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동의 정도를 다섯 단계의 리커트 척도

(Likert-scale), 즉 ‘1.전혀아니다 - 2.아니다 - 3.보통이다 - 4.그렇다 - 5.매우그렇다’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본인이 남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감정을 공유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단을 선택하고 그 집단의 가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해야 하지.
- (b) 결혼하면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어주고 손자를 만들어주니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가족을. 그제 사람 사는 데 기본이라는 거지.
- (c)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뭐 하느라 경력 단절되는 게 너무 싫어. 계속 내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데. 진짜 나를 위해 온전히 내 삶을 살고 싶어.
- (d) 삶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이 같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쁜 거지. 그게 사는 거지.
- (e)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 보내고, 돈 투자하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인생이지.
- (f) 아이 문제, 명절 등 가정을 꾸렸을 때 생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을 아내와 남편, 서로가 잘 조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
- (g) 사랑이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지.
- (h) 큰아버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충고와 훈계에 정말 마음이 상했지만, 엄마와 아빠의 체면을 봐서 그 당시 나의 불편한 속내를 직접 표현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한 일이야.
- (i) 회사에서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해왔고, 실적도 우리 부서에서 내가 제일 좋았던 거 너도 알지? 근데 우연히 내년 승진 명단에 내가 아니라 나보다 실적도 좋지 못했던 최선배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 (j) 어느 청년의 신호 위반으로 접촉사고를 당한 한 중년 남성은 보상 및 배상 문제로 청년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청년의 부모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물질적 보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시된 모두 열 가지의 상황은 가족관(3문항), 인생관(5문항), 피해보상관(2문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가족관은 가족관계(b), 결혼관(f), 결혼 후 생활관(h)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인생관은 사회관(a)과 집단 또는 개인적 가치관(c), (d), (e), (g)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피해보상관을 확인하는 상황은 (i)와 (j)로서 내집단에서 개인 능력에 대한 피해와 외집단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상황으로 구성한다. 모든 문항은 진술문 형태의 긍정문으로 설계한다. 분야 3은 피험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자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험자가 느끼고 판단하는 내면의 모습을 묘사하는 세 가지 문항으로 설계한다. “나는 _____.”과 같은 문항을 제시하여 직접 빈칸을 작성하도록 한다. 분야 4는 가족 명절 대화에서 갈등 유발 표현에 대한 취준생의 진솔한 응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담화완성형 문항으로 구성한다. 두 담화를 하나의 쌍으로 구성하여 모두 다섯 쌍의 문항으로 구성한다. 두 담화 내용은 동일하되 하나의 담화는 질문 또는 제안과 같은 일반적 담화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비교, 충고, 또는 훈계와 같은 갈등 유발 표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각 담화에 포함된 네 가지 유형의 표현은 2016년 취업 포탈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취준생이 명절 대화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이데일리, 2016. 2. 5.).

3.3 질적분석 1: 청자 (피험자) 유형화 분석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유형별 청자의 개념을 (3)에서와 같이 정리한다.

(3) 세 가지 유형의 청자 개념

1. 자아중심형 청자: 개인주의 문화 배경의 청자로서 자신의 감정, 인식, 동기 등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자아해석관의 청자
2. 상호의존형 청자: 집단주의 문화 배경의 청자로서 상대의 감정, 목적, 관계적 협업 등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자아해석관의 청자
3. 양립형 청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배경이 공존하는 청자로서 상호 관계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자아해석관의 청자

상정한 개별 상황은 피험자의 문화주의(개인 또는 집단주의)와 자아해석(자아중심 또는 상호의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한다. 개인주의와 자아중심형 자아해석에 관한 상황에 척도 1(전혀아니다) 또는 2(아니다)를 선택할 경우 피험자는 집단주의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가진 경우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설문(c)인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뭐 하느라 경력 단절되는 게 너무 싫어. 계속 내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데. 진짜 나를 위해 온전히 내 삶을 살고 싶어.”를 보자. 해당 문항은 개인주의 문화와 개인의 감정, 동기, 인식 등의 자아중심적 결혼관을 기술하고 있다. 만일 피험자가 해당 문항에 척도 4 또는 5를 선택한다면 해당 피험자는 자아중심 해석관과 개인주의 문화배경의 청자로 해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 척도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 집단주의 문화와 상대의 감정, 목적, 관계적 협업 등의 상호의존 해석관과 집단주의 문화 배경의 청자로 해석한다. 한편, 각 상황에 척도 3을 선택한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의 문화 배경이 공존하고 상호 관계의 목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양립형 해석관의 청자로 해석한다. 각 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선택(자아중심형, 상호의존형, 양립형)을 살펴본 후 각 유형의 비율 중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을 피험자의 자아해석관으로 판단한다.

3.4 질적분석 2: 해석 양상 분석

우선 분야 4의 응답은 청자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피험자의 응답을 화행 분석을 통해 세분화한다. 피험자가 특정 응답을 결정한 과정은 대화전개 분석²을 통해 이해한다. 대화 핵심 단계에서는 상대 발화에 대한 ‘청자의 해석’ 및 ‘항후 관계 처리 과제’가 수행된다. 다시 말해, 전자는 화자가 전달한 발화 의미를 청자의 것으로 이해하는 단계(의미 해석 과정)를 말하며 후자는 청자가 지향하는 화자와의 관계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응답 구성 과정)를 말한다. 응답 구성 과정에는 화자와의 체면 협상 내용, 즉 청자가 결정하는 체면 추구방향을 말한다.³ 체면

² Brinker & Sager (2006)는 대화는 보편적으로 대화시작, 대화핵심, 대화종결의 선형적 과정을 따라 진행된다고 보았다.

³ Ting-Toomey & Kurogi (1998)는 체면을 개인에게 고정된 바램이 아닌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추구방향이란 대화 해석 과정의 중간 산물이라는 점에서 청자의 관계 처리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한승훈·이성범, 2015). 이는 결국 청자의 발화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에까지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청자가 선택하는 응답, 즉 특정 화행으로 실제 대화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대화 전개 분석 과정 중 ‘대화핵심’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명절 갈등 담화에 대응하는 유형별 청자의 해석 양상을 살펴본다.

IV. 질적분석

4.1 분야 1: 피험자 정보

피험자는 100명으로 남학생 37명, 여학생 63명이 참여했다. 피험자의 나이는 25세(23명), 24세(18명), 23세(17명), 26세(14명), 27세(14명), 28세(9명), 29세(3명), 21세(1명), 22세(1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4학년 77명, 3학년 16명, 2학년 7명으로 확인되었다. 취업 준비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3명, 2년에서 3년 사이는 2명, 4년 이상은 1명으로 확인되었다.

4.2 분야 2: 피험자 자아해석관

분야 2의 응답 및 자아해석관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정리한다. 모든 문항의 응답은 다섯 단계의 척도로 구성한다.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체면 추구 방향과 개인이 결정한 상호관계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체면은 자아중심, 타인지향, 상호지향 목적에 따라 실현된다고 보았다.

〈표 1〉 문항별 응답 결과 (단위: 명)

문항 \ 척도	1	2	3	4	5	합계
a	4	10	30	42	14	100
b	18	27	27	22	6	100
c	1	6	23	30	40	100
d	1	6	14	47	32	100
e	0	1	7	44	48	100
f	0	0	4	27	69	100
g	4	14	20	40	22	100
h	9	32	27	26	6	100
i	0	5	16	44	35	100
j	1	5	6	32	56	100

피험자의 자아해석관은 인생관(a, c, d, e, g), 가족관(b, f, h), 피해보상관(i, j)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한다. 인생관을 살펴보면, a는 개인과 집단 가치관 중 기준점, c는 사회생활에서의 지향점, d는 내집단(가족 또는 회사)에서의 관계지향점, e는 인생의 지향점, g는 외집단(사회)에서의 관계 지향점에 관한 문항이다. 가족관을 살펴보면, b는 결혼과 가족관, f는 결혼 생활에서 역할 분담, h는 내집단(가족)에서의 관계 지향점, 즉 가족과의 불편한 상황에서 피험자가 추구하는 관계 추구 방향에 관한 문항이다. 피해 보상관을 살펴보면, i는 내집단(회사)에서의 개인 능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 j는 외집단(사회)에서의 개인 피해에 관한 문항이다. 분야 2에 대한 산술 통계 결과는 <표 2>를 통해 정리한다.

〈표 2〉 분야 2 통계 결과⁴

항목	인생관(사회관, 집단-개인 가치관)					가족관			피해보상관	
	a	c	d	e	g	b	f	h	i	j
평균	3.52	4.02	4.03	4.39	3.62	2.71	4.65	2.88	4.09	4.37
표준편차	0.98	0.98	0.89	0.66	1.09	1.17	0.56	1.08	0.84	0.88
청자 유형	양립	자아 중심	상호 의존	자아 중심	양립	상호 의존	자아 중심	자아 중심	자아 중심	자아 중심

⁴ <표 2>는 피험자의 문화 배경과 자아해석관 결과에 대한 보편적 성향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는 점에서 피험자의 개별적 차이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양립형 청자는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아중심형 청자가 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호의존형 청자는 11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양립형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경계적 속성을 보이는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험자 별로 자아중심 또는 상호의존 가치 중 높은 비율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아중심-양립형(양립형 1)은 32명, 자아중심-상호의존 양립형(양립형 2)은 10명, 상호의존-양립형(양립형 3)은 3명이었다. 양립형 1은 10개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 중 자아중심 항목이 상호의존 항목보다 많은 경우를 가리키며 양립형 3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양립형 2는 그 수가 동일한 경우를 가리킨다. 양립형 1은 자아중심 항목이 집단주의 항목보다 많지만 전체적으로 양립형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특히 가족관 중 결혼과 가족관(b)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역할 분담(f)에 자아중심적 해석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아중심형이 우세한 문항은 c, e, f, i, j로 확인된다. c는 사회생활에서 지향점, e는 인생 지향점, f는 가족(내집단)에서의 역할 분담, i는 회사(내집단)에서 개인적 피해, j는 외집단에서 개인적 피해에 관한 문항이다. 피험자가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c, e)과 자신의 역할과 권리(f, i, j)를 지키려는 부분에서 높은 비율의 자아중심적 해석관이 확인된다. 개인이 추구하는 인생관과 사회관 그리고 결혼 생활과 개인의 피해라는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에서도 역시 자아중심적 해석관의 비율이 높게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의 자아해석 형성 과정에 개인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한다 (Oetzel & Ting-Toomey, 2003).

상호의존형이 우세한 문항은 b, d, g, h로 확인되었고 b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항은 타인과의 관계(가족 또는 사회구성원)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이다. Ting-Toomey 외 2 (2001)에서는 상호의존형 자아해석은 집단주의 문화의 산물로서 내집단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 유지, 상호 체면 유지, 또는 내집단의 목적과 가치관을 수용하려는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Ting-Toomey 외 2 (200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본 설문에서 해당 유형의 피험자가 11명으로서 전체 피험자 비율 중 11%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집단주의적 문화 배경을 갖는다는

그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4.3 분야 3: 자아상 분석

자아상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개의 문항을 구성한다. 문항은 ‘나는 ____.’의 형식에서 볼 수 있듯이 피험자가 문장의 술어부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해당 문항을 복수로 설계한 이유는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능성과 희망을 표현하는 “-할 수 있다, -이었으면 좋겠다, -되고 싶다”와 의지 표현인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등의 미래의 희망적 자아상을 그리는 표현이 187개(62.3%)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긍정적 모습을 표현하는 “-이다, -한다, -하다” 등의 진술형 어미 형태는 86개(28.6%)인 반면 현재의 부정적 모습의 표현인 “-인 것 같다, -일까?, -없다” 등의 불확실형 어미는 27개(9.1%)로 확인되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의 자아상에 관한 내용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는 “성공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열심히 살고 싶다”와 같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자아상의 경우, “열심히 산다, 열정적이다, 잘났다” 또는 “우울하다, 소심하다,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등과 같이 피험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피험자 응답이 현재-현재-미래 또는 현재-미래-미래의 시간 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야 3은 피험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신의 현재 또는 미래의 내면의 모습, 즉 자아상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이는 개인의 자아해석관과 정체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Ting-Toomey & Kurogi, 1998; Oetzel & Ting-Toomey, 2003). Ting-Toomey 외 2 (2001)는 자아상이란 가족문화, 구성원 가치, 문화 배경, 교육내용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토대로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의식 또는 관념적인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분야 3의 결과는 분야 2 결과를 해석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4.4 분야 4: 화행분석

분야 4에서는 모두 열 개의 담화 완성 문항을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각 담화 상황에서 상대 발화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게 하였다. 담화 내용과 구성은 (4)에 정리한다.

(4) 담화 내용 및 구성⁵

1. 1) 질문: 그랬구나. 네 전공 살리면 어디로 취업할 수 있니?

응답: _____

2) 질문: 그랬구나. 네 전공 살리면 어디로 취업할 수 있니?

응답: _____

충고: 너무 고르지 말고 아무데나 가.

응답: _____

2. 1) 질문: 언제 취업할 거니?

응답: _____

2) 질문: 언제 취업할 거니?

응답: _____

비교: 너 000알지? 올해 초 000은 S사에 입사했다고 하더라.

응답: _____

3. 1) 제안: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해보는 건 어때?

응답: _____

2) 제안: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해보는 건 어때?

응답: _____

충고: 준비도 앞가림해가면서 해야지.

응답: _____

4. 1) 질문(충고): 그나저나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응답: _____

⁵ 각 문항의 이전 담화 내용은 중략함.

2) 질문: 그나저나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응답: _____

질문(충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응답: _____

5. 1) 비교: 너 000알지? 며칠 전에 000엄마 만났는데, 작년 말 L사에 입사했다고 하더라.

응답: _____

2) 질문: 우리 000은 언제쯤 가능할까?

응답: _____

충고: 너무 고르지 말고 아무데나 가.

응답: _____

(4)에 정리한 표현은 3-4쌍의 선행 담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담화 내 화자는 집안 어른 또는 부모님으로 한정한다. 열 개의 예시를 다섯 쌍의 담화로 구성하며 예시 (4)-5를 제외하고 (4)-1-1)부터 (4)-4-1)은 사실 또는 객관적 정보를 묻거나 개인적 의견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그러나 각 예시의 2)는 비교, 충고, 훈계와 같은 표면적으로는(발화행위)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지만 발화에 내포된 또 다른 암시적 의미는(발화수반행위) 비판, 꾸짖음, 비난, 책망 등과 같은 상대에 대한 화자의 불편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발화로 구성한다. 피험자가 가상의 갈등 상황을 경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4)-1)부터 (4)-4)까지의 화자는 가족 중 불특정 집안 어른으로 설정하였고 (4)-5)는 부모님으로 설정한다.⁶

(4)-1-1)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청자의 응답은 상대의 질문이 요구하는 내용에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즉, 수용하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립형은 45명 중 회피 3명(7%)을 제외한 42명(93%), 자아중심형 44명 중 회피(“몰라요”)를 선택한 4명(9%)을 제외한 40명(91%), 상호의존형은 11명(100%) 모두 수용하기를 선택하였다. 다만 양립형과 자아중심형 청자의 응답에서 차이점을 확

⁶ 피험자와 대화참여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 친밀감, 유대감 인자가 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문 결과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할 수 있다. 양립형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 또는 전공과 무관한 분야이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업무 등을 언급하였던 반면 자아중심형의 경우, 최근 취업의 어려움과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공 관련 분야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다(14명/ 40명). 이들의 응답을 요약해보면, ‘화자가 능력은 있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소수의 피험자에게서 확인되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자의 자아중심형 해석관이 의미해석과 응답구성 과정에 개입하여 상대가 아닌 자신의 적극적 체면, 즉 타인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이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자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로 결정한 결과가 관계처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험자가 결정한 언어적 행동이 반박하기 형태가 아닌 수용하기 형태로 표상된 이유는 자신의 체면 지키기 문제와 더불어 상대와의 관계 유지 또한 중요한 관심사로 판단하고 두 문제 사이의 균형 잡기를 한 결과로 보인다. (4)-1-1)의 분석 결과를 (5)에 정리한다.

(5) 질문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수용(42명/ 93%), 회피(3명/ 7%)
2. 자아중심형: 수용(40명/ 91%), 회피(4명/ 9%)
3. 상호의존형: 수용(11명/ 100%)

(4)-1-2)의 결과는 충고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양립형의 경우, 간접 반박 23명(51%), 수용 22명(49%)으로 확인된다. 충고는 상대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또는 생각을 바꾸거나 바로잡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내포된 화행이다. 청자는 충고에 대한 의미 해석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화자의 훈계 또는 비판의 발화수 반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기 형태가 가장 많이 확인된 이유는 화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청자는 화/ 청자 모두의 체면을 유지하는 결정을 가장 이상적 선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수용하기라는 관계처리 결정 과정의 결과물로 표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분명 대화 목적과 청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체면 추구 방향과 관계처리 결정을 유동적으로 선택하려는 양립형 청자의 특징과 유사한 결과이다 (Ting-Toomey & Kurogi, 1998).

한편 자아중심형 청자의 응답은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고 내용 면에서 양립형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반박 37명(84%, 간접반박: 21명(57%), 직접반박: 16명(43%), 수용하기 5명(11%), 무시하기 2명(5%)으로 확인된다. 이를 양립형과 비교해 볼 때, 반박하기 화행이 우세한 이유는 화자가 상대방의 충고가 전달하는 불편한 발화수반의미를 해석한 후, 자신의 자아중심적 해석관이 상대방의 관계 유지보다 자신의 체면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계처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상호의존형의 경우, 수용 8명(73%) 반박 3명(27%, 간접반박: 2명, 직접반박: 1명)으로 확인되었고 상대적으로 간접성이 높은 반박하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자가 상대방의 충고가 내포한 불편한 발화수반력은 이해하였으나, 상호의존형 청자의 경우, 대화에서 상대방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한 대화 목적이라는 점에서 간접화행을 통해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최대한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청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승훈·이성범, 2015). (4)-1-2)의 분석 결과를 (6)에 정리한다.

(6) 충고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직접반박(0명), 간접반박(23명/ 51%), 수용(22명/ 49%), 무시(0명)
2. 자아중심형: 직접반박(16명/ 36%), 간접반박(21명/ 48%), 수용(5명/ 11%), 무시(2명/ 5%)
3. 상호의존형: 직접반박(1명/ 9%), 간접반박(2명/ 18%), 수용(8명/ 73%), 무시(0명)

(4)-2-1)과 (4)-1-1)의 결과는 유사하다. 수용하기는 양립형의 경우 44명(98%), 자아중심형 39명(89%), 상호의존형 10명(91%)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아중심형에서는 화자의 질문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런 질문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와 같은 요청의 발화수반력을 전달하려는 경우가 27명(69%)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유형의 청자 응답을 살펴보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곧 되겠죠,” “때가 되면 하겠죠. 평생 일할 건데 일찍 취업해서 뭐하나요?” 등이다. 이는 모호하기는 하나 청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언급하는 동시에 적당한 관심

만 보여 달라는 청자의 불편한 의도가 담긴 요청의 함축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2-2)의 비교 화행을 알아보자. 물론 비교하기는 경우에 따라 청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언 또는 자극제와 같은 긍정적인 기폭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자는 비교 대상보다 열악한 자신의 현 상태를 비난하거나 비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비교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화행이다. 양립형에서는 무관심 또는 절제 26명(58%), 공감 12명(27%), 반박 7명(15%)으로 확인된다. 특히 설문에서 확인된 무관심 표현하기는 “그래서 어찌라는 겁니까?”의 반문의 의미를 갖는 “아, 아하, 아 네” 등과 같은 담화표지어(discourse marker)⁷가 청자의 응답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화자의 불편한 의도를 암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표시자로서 특히 젊은 화자의 언어 사용에서 많이 확인된다. 자아중심형의 경우에서도 양립형과 유사하게 무관심 또는 절제 20명(45%), 반박 14명(32%), 공감 및 부러움 표현 10명(23%)으로 확인된다. 상호의존형 역시 무관심 또는 절제 5명(45%), 공감 및 부러움 표현 3명(27.5%), 반박 3명(27.5%)으로 확인된다. 분석 결과를 (7)에 정리한다.

(7) 비교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무관심, 절제(26명/ 58%), 반박(7명/ 15%), 공감(12명/ 27%)
2. 자아중심형: 무관심, 절제(20명/ 45%), 반박(14명/ 35%), 공감(10명/ 23%)
3. 상호의존형: 무관심, 절제(5명/ 45%), 반박(3명/ 27.5%), 공감(3명/ 27.5%)

모든 유형의 청자에서 무관심 및 절제하기가 가장 많이 확인된 점은 비교 화행이 내포하는 불편한 발화수반 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비교 대상을 부러워하는 청자 자신의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청자 자신이 경험한 인식의 결과를 공감하기로 표현하게 된다면 청자는 자신의 적극적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청자는 상대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체면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처리를 결정할 것이다.

⁷ 대화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화자 간의 관계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는 문장의 핵심 의미를 보조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화자의 불편한 의도를 암시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영어의 경우, well, right, actually, sort of, rather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서 청자별 자아해석관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반박하기의 경우 자아중심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직접성이 높은 화행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대와의 관계 유지와 자신의 체면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조율한 결과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4)-3-1)의 제안의 경우 모든 유형의 청자에게서 거절하기(양립형: 16명(36%), 자아중심형: 29명(66%), 상호의존형: 6명(55%)), 부분 거절하기(양립형: 16명(36%), 자아중심형: 11명(25%), 상호의존형: 2명(18%)), 수용하기(양립형: 13명(28%), 자아중심형: 4명(9%), 상호의존형: 3명(27%))의 세 가지 화행이 확인된다.

거절과 부분 거절하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화자가 제안하는 대안을 청자가 수용하는 정도 또는 청자의 거절 내용이 갖는 간접성 정도이다. 거절하기는 양립형 1(16명)과 자아중심형(29명)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었고 부분 거절하기는 자아중심형(11명), 양립형 1 그리고 양립형 2(16명)에서 확인된다. 청자 응답을 살펴보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구체적인 예시부터 좀 들어줘 보시겠어요?, 소개해주시고 말해주세요.” 등의 화자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런 말뿐인 대안 제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절의 발화수반력을 내포하는 화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그렇かも 생각했죠, 다른 일이라고 쉽나요, 어디?, 생각해볼게요, 그건 마땅치 않네요.” 등의 부분 거절하기 응답은 화자의 제안을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여려는 청자의 수용적 태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거절하기의 경우와는 화행의 간접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비록 두 화행 사이에는 간접성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응답에 내포된 발화수반 내용이 동일하게 거절이라는 점에서 이는 청자의 자아중심 해석관과 개인주의 문화가 청자의 해석과정과 관계처리 과정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다시 말해 청자의 거절 화행은 화자의 제안에 내포된 불완전한 의도를 청자가 이해하여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방향을 결정한 결과이다.

한편 수용하기는 상호의존형(27%)과 양립형(28%)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었으며 특히 양립형 2와 양립형 3의 청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11명). 사례로는 “인턴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다른 일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알바하면서 하려고요, 최대한 빨리 구하겠습니다.” 등이다. 수용하기 화행이 사용된 이유는 상대의 체면을 유지하고 나아가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상호의존형 자아

해석관과 집단주의 문화가 청자의 해석과정과 관계처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4)-3-2)의 충고에 대한 응답을 알아보자. 제시한 발화는 “준비도 앞가림해가면서 해야지.”라는 훈계 또는 책망의 발화수반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반박, 회피 또는 침묵, 수용의 응답이 확인된다. 분석 결과를 (8)에 정리한다.

(8) 충고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반박(22명/ 50%), 수용(15명/ 33%), 회피, 침묵(8명/ 17%)
2. 자아중심형: 반박(26명/ 59%), 수용(7명/ 16%), 회피, 침묵(11명/ 25%)
3. 상호의존형: 반박(1명/ 9%), 수용(7명/ 64%), 회피, 침묵(3명/ 27%)

반박의 경우 자아중심형이 26명(59%)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수용의 경우 상호의존형이 7명(64%)으로 가장 많았다. 회피 또는 침묵의 경우 자아중심형(25%), 양립형(17%), 상호의존형(27%) 순으로 확인된다. 반박과 회피 화행을 결정한 청자의 해석 양상을 살펴보자. 자아중심형과 양립형 1 청자에서 반박하기 응답 비율이 높게 확인된 이유는 해당 유형의 청자에게는 충고가 내포하는 비난, 훈계, 책망 등의 발화수반 의미가 갈등 유발 인자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자아중심형 해석관의 청자는 화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권리, 정체성, 이익 등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만일 이러한 청자의 관심사가 상대방부터 무시되거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청자는 이를 자신의 피해로 인식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충고에 담긴 화자의 진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한 점은 충고가 전달하는 발화수반 의미가 결국 해당 유형 청자의 관심사와 체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과정을 경험한 청자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 반박하기 또는 회피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4)-4-1)의 경우 (4)-4-1)과 (4)-4-2)는 발화의 통사적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간접성 차이가 있는 충고 또는 제안의 함축 의미를 갖는 발화이다. (4)-4-1)이 (4)-4-2)보다 간접성이 높은 발화이다. 두 발화 내용은 각각 “그나저나 취업은 언제 할 거야?”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다. 우선 (4)-4-1)의 결과부터 알아보자. 양립형은 수용 27명(60%), 회피 15명(33%), 반박 3명(7%)으로 확

인된 반면 자아중심형은 회피 17명(39%), 수용 15명(34%), 반박 12명(27%)으로 확인된다. 상호의존형에서는 수용 6명(55%)과 회피 5명(45%)이 확인된다. 분석 결과를 (9)에 정리한다.

(9) 질문(간접충고)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수용(27명/ 60%), 회피(15명/ 33%), 반박(3명/ 7%)
2. 자아중심형: 수용(15명/ 34%), 회피(17명/ 39%), 반박(12명/ 27%)
3. 상호의존형: 수용(6명/ 55%), 회피(5명/ 45%), 반박(0명)

(4)-4-2)의 경우 양립형은 회피 18명(40%), 수용 15명(33%), 반박 12명(27%), 자아중심형은 반박 18명(41%), 회피 14명(32%), 수용 12명(27%), 상호의존형은 수용 9명(82%)과 반박 2명(18%)이다. (4)-4-1)은 간접성이 높은 발화로서 양립형과 상호의존형에서는 수용하기 비율이 높은 반면 자아중심형에서는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편 간접성이 낮은 (4)-4-2)의 경우 양립형과 자아중심형에서는 회피하기와 반박하기 비율이 높은 반면 상호의존형에서는 수용하기의 비율이 높다. 결과 중 (4)-4-1)의 회피하기를 중심으로 유형별 청자의 해석 양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자아중심형과 양립형 청자의 응답 중 회피하기가 각각 39%와 33%를 보였다. 그 이유는 청자는 해당 발화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화자가 요청하는 취업 시기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령 “빨리 취업해야지” 등의 충고나 제안의 암시적 의미를 복원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성이 높은 발화일수록 함축 의미에 대한 책임은 청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자아중심형 청자일자라도 화/ 청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명시적으로 교환되지 않은 암시적 정보만으로 이를 갈등 유발 인자로 판단하여 상대에게 공격적 언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아중심형과 양립형 청자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회피 또는 침묵하기 화행을 관계처리 과정에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간접성이 낮은 (4)-4-2)의 경우, 반박과 회피하기 응답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간접성 차이에 따라 양립형과 자아중심형 청자는 각각 수용하기에서 회피하기 그리고 회피하기에서 반박하기로 상대와의 관계처리 결정을 변경한다. 다시 말해, 청자의 자아해석관은 화자 발화의 간접성 정

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4)-4-2)의 결과를 (10)에 정리한다.

(10) 질문(직접충고)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회피(18명/ 40%), 수용(15명/ 33%), 반박(12명/ 27%)
2. 자아중심형: 회피(14명/ 32%), 수용(12명/ 27%), 반박(18명/ 41%)
3. 상호의존형: 회피(0명), 수용(9명/ 82%), 반박(2명/ 18%)

(4)-5의 결과를 살펴보자. 제시된 예시문의 발화수반력은 각각 비교 (“너 000알지? 며칠 전에 000엄마 만났는데, 작년 말 L사에 입사했다고 하더라.”), 질문 그리고 충고 (“우리 OO은 언제쯤 가능할까?”, “너무 고르지 말고 아무데나가.”)이다. 비교의 결과부터 살펴보자. 청자가 선택한 화행은 가식적 공감, 회피, 반박하기로 확인된다. 양립형의 경우 가식적 공감 31명(69%), 회피 9명(20%), 반박 5명(11%) 이었고 자아중심형에서는 가식적 공감 23명(52%) 반박 15명(34%), 회피 6명(14%) 이었다. 상호의존형에서는 가식적 공감 6명(55%), 반박 3명(27%), 회피 2명(18%) 이었다. 가식적 공감하기 화행이 모든 유형의 청자에게서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화행은 공감의 내용과 담화표지어 “아, 아 하, 아 네” 등이 함께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화행은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담고 있는 발화수반 의미에는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고자 한다는 청자 자신만의 고유한 의도가 담긴 결과이다 (한승훈·아성범). 따라서 청자는 비교 화행이 함축하는 부정적 의미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상대와의 관계 유지 또한 중요한 관심사로 판단하여 가식적 공감하기 화행을 관계처리 과정에서 결정했다는 점이다. 결과를 (11)에 정리한다.

(11) 비교(간접충고)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가식적공감(31명/ 69%), 회피(9명/ 20%), 반박(5명/ 11%)
2. 자아중심형: 가식적공감(23명/ 52%), 회피(6명/ 14%), 반박(15명/ 34%)
3. 상호의존형: 가식적공감(6명/ 55%), 회피(2명/ 18%), 반박(3명/ 27%)

한편 (4)-5-2)의 경우에는 충고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확인된 응답으로는 반박, 가식적 공감, 수용, 회피하기이다. 양립형에서는 반박 14명(31%), 가식적 공감 13명(29%), 수용 9명(20%), 회피 9명(20%) 이었고, 자아중심형에서는 반박 28명(63.5%), 가식적 공감 8명(18%), 회피 6명(14%), 수용 2명(4.5%)이었다. 상호의존형에서는 반박 5명(46%), 회피 3명(27%), 가식적 공감 2명(18%), 수용 1명(9%) 이었다. (4)-5-1)의 결과와는 달리 모든 유형의 청자에게서 반박화행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특히 자아중심형 청자가 반박화행을 현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의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자아중심적 해석관과 개인주의 문화가 의미해석과 관계처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12)에 정리한다.

(12) 충고 화행에 대한 청자별 응답 결과

1. 양립형: 반박(14명/ 31%), 가식적공감(13명/ 29%), 수용(9명/ 20%), 회피(9명/ 20%)
2. 자아중심형: 반박(28명), 가식적공감(8명/ 18%), 수용(2명/ 4.5%), 회피(6명/ 14%)
3. 상호의존형: 반박(5명), 가식적공감(2명/ 18%), 수용(1명/ 9%), 회피(3명/ 27%)

V. 발견 및 논의

피험자 자아 분석 결과에서 양립형 청자 45명, 자아중심형 청자 44명, 상호의존형 청자는 11명으로 확인되었다. 양립형 청자는 자아중심-양립형(양립형 1) 32명, 양립형(양립형 2) 10명, 상호의존-양립형(양립형 3) 3명이다. 특히 양립형 1은 결혼과 가족관 항목 중 역할 분담에 대한 항목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 반면 사회관 항목 중 내/ 외집단에서의 관계 유지 항목에서는 중립적 성향을 보였다. 자아중심형 청자는 사회, 인생관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권리 항목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호의존형 청

자는 가족 또는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항목에서 집단주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분야 4의 결과는 청자의 유형에 따라 자아해석관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의 결과물인 화해의 형태와 의미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고, 비교, 제안을 통해 청자가 자신 없어하거나 꺼려하는 주제인 취업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청자에게 가상의 갈등 상황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청자는 이를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답화 3의 제안과 답화 5의 충고에 대한 상호의존형 청자의 응답이 반박 또는 회피하기가 73%와 거절하기가 73%로 확인된 점은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분야 3의 자아상 분석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피험자들은 현재 자신의 관념적 모습, 즉 현재의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험자들은 비록 집단주의 문화 배경과 상호의존형 자아해석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갈등의 본질보다는 갈등의 부정적 측면 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화 핵심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청자의 해석 양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자. 자아해석관에 영향을 주는 답화 내적 요인으로는 화자 발화가 내포하는 함축 또는 발화수반 의미의 내용과 발화의 형태이다. 충고, 비교, 비난, 훈계 등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 발화수반 의미를 청자가 인식한 것이 갈등 유발 인자로 작용하였다. 이후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미를 해석하고 관계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청자의 자아해석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자의 자아해석관은 청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체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피험자의 자아해석관 유형과 피험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체면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은 Ting-Toomey & Kurogi (1998)과 Ting-Toomey 외 2 (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형별 청자의 해석 양상, 즉 의미 해석 과정과 응답 구성 과정(관계처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청자의 자아해석관 유형은 특히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중심형 청자는 갈등에서 자신의 감정, 인식, 목적, 동기를 기준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매우 뚜렷하다. 따라서 직접성이 높은 거절 또는 반박 그리고 회피 또는 무

관심으로 갈등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처하였다. 상대방부터 손상당했다고 인식한 자신의 체면을 복원시키기 위해 반박, 거절, 무관심 화행을 사용하여 상대의 체면을 공격하거나 불편한 자신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호작용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양립형 청자는 대화의 목적 또는 상대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자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갈등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였다. 양립형 1, 즉 자아중심-양립형은 특히 가족관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주의 문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자로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또는 가족 내 자신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는 반박 및 거절 화행을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상호의존형 청자는 자신보다 상대의 감정, 대화 목적, 관계적 협업 등을 고려하면서 관계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성향을 보였다. 비록 화자의 발화가 청자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하더라도 상호의존형 청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보다 상대의 체면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처리를 결정하려는 성향을 보였다.⁸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권 국가의 구성원은 집단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관을 가진 경우가 지배적이다. 물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는 모든 국가에 공존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국가에서 두드러지고 지배적인 문화의 색이 해당 국가의 문화 배경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VI. 결론

개인의 문화 배경은 각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자아해석관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 토대이다. 문화 배경과 개인의 해석관은 언어 해석과 언어처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화, 심리적 요인이다. 최준생의 자아해석관을 유형화하여 명절 갈등 표현의 해석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본 연구는 최준생들이 겪고 있는 명절 가족 대화에서 발생하는 언어사용의 문제를 최준생의 문화 배경과 자아해석관을 중심으로 최준생의 입장에서 고찰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⁸ 다만 상호의존형 청자 중 현재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3명(27%)의 청자는 갈등을 지배하려는 자아중심형 청자와 유사한 관계처리 결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정된 표본 수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취준생의 명절 갈등 담화에 대한 해석 양상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만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의 70% 정도가 명절 동안 가족들과 나누는 취업 관련 대화가 취준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감, 무력감 등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취준생의 현실적 어려움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 배경과 자아해석관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진지한 노력은 건강한 명절 가족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의지는 미래를 향한 취준생의 도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Works Cited

- Brinker, Klaus. and Sager, Sven F. *Linguistische Gesprächsanalyse. Eine Einführung*. Berlin. (2006).
- Brown, Penelop. and Levinson, Stephan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Chen, Rong. Self-politeness: A proposal.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87-106.
- Chong, Hyun-Sook. "Case Analyses of Parent-College Student Inter-generational Conflict: A Multi-levelled Approach to Actual Communication Conflict." *Speech & Communication*, 11 (2009): 7-46.
[정현숙. 「부모-대학생 세대 간 갈등 사례연구: 실제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11 (2009): 7-46.]
- Goffman, Erving.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Penguin University Books. (1967).
- Han, Seung-Hoon. and Lee, Sung-Bom. "A Study of concept and direction on Hearer-intentions (*H-intentions*): Family Discourse." *Language Research*, 51.3 (2015): 815-841.
[한승훈, 이성범. 「청자의도(*H-intentions*)의 개념화와 방향성 연구: 가족 담화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51.3 (2015): 815-841.]
- Jeon, Kyung-Mi. "Perception and Conflict of Married Women Immigrants on Korean Traditional Holiday Culture." *In proceeding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Society*, 1 (2013): 335.

- [전경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명절 문화 인식과 갈등」.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 (2013): 335.]
- Kang, Kil-Ho. “The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ace and Other-face : An Attempt to Theorize Korean Communication Phenomena.”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9 (2009): 106-131.
[강길호. 「양자체면이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이론화의 한 시도」. 『커뮤니케이션 화법연구』 9 (2009): 106-131.]
- Kim, Ji-Hee. and Kwon. Soon-H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College Students - through analysis of daily conversations-.”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28 (2015): 2-36.
[김지희, 권순희.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증진 방안 연구-일상대화 분석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28 (2015): 2-36.]
- Kim, Soon-Jong. *A Study on the Stres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Holiday Myeongjeol: Focused on the Family Values, Myeongjeol Perception, Myeongjeol Charye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4.
[김순중. 『명절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족가치관, 명절인식, 명절차례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Kim, Young-Wook and Yang Jeong-Eun. “Face,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Research on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face-communication model.” *In proceedings i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Studies*, 5 (2011): 315-360.
[김영욱, 양정은. 「체면, 소통, 그리고 갈등해소: 체면-소통모델과 소통의 가능성 모색」.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5 (2011): 315-360.]
- Koo, Hyun-Jeong. “A State-of-Affairs of Verbal Inter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Based on an Internet Survey-.”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26 (2014): 205-232.
[구현정. 「장모-사위 대화의 실태 연구-사위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6 (2014): 205-232.]
- Leech, Geoffrey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New York: Longman. (1983).
- Markus, Hazel R. and Kitayama, Shinobu.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1991): 224-253.
- Mills, Sara. *Gender and Politenes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Noh, Eun-Hee. “A Study on Response Utterances in Intergenerational Conflict Conversations.”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29 (2015): 65-102.
[노은희. 「세대 간 갈등 대화에서의 말대답, 말대꾸 양상 분석」. 『화법연구』 29 (2015): 65-102.]

- Oetzel, John G. The effects of ethnicity and self-construals on self-reported conflict styles. *Communication Reports*, 11 (1998): 133-144.
- Oetzel, John G. and Ting-Toomey, Stella. Face concerns in Interpersonal Conflict: A cross-Cultural Empirical Test of the Face Negotiation Theory. *Communication research*, 30.6 (2003): 599-624.
- Sifianou, Maria. Disagreements, face and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44 (2012): 1554-1564.
- Singelis, Theodore M. and Brown, William J.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1995): 354-389.
- Ting-Toomey, Stella. Managing Intercultural Conflicts Effectively. Chap. 7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7th ed (1994): 360-371.
- Ting-Toomey, Stella. and Kurogi, Atsuko. Facework competence in intercultural conflict: An updated face-negotiatio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 (1998): 187-225.
- Ting-Toomey, Stella., Oetzel, John G. and Yee-jung Kimberlie. Self-Construal Type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Communication Reports*, 14.2 (2001): 87-104.
- Watts, Richard J.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Yoon, Sook-Ja and Kim Hee-Jeong. "The rel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2013): 23-30.
[윤숙자, 김희정.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 『디지털정책연구』 11.8 (2013): 23-30.]

뉴스토마토, 2017.1.2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26758>.

한국경제, 2017.1.2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246914g>.

이데일리, 2016.2.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518646612547568&DCD=A00701&OutLnkChk=Y>.

한승훈 (서강대학교 / 대우교수)

주소: (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826호

이메일: pragmatics@sogang.ac.kr

논문접수일: 2021. 09. 30 / 심사완료일: 2021. 11. 06 / 게재확정일: 2021. 11. 10